

□ 97 문화유산의 해 특집

강통식혜에 담긴 우리 문화 보존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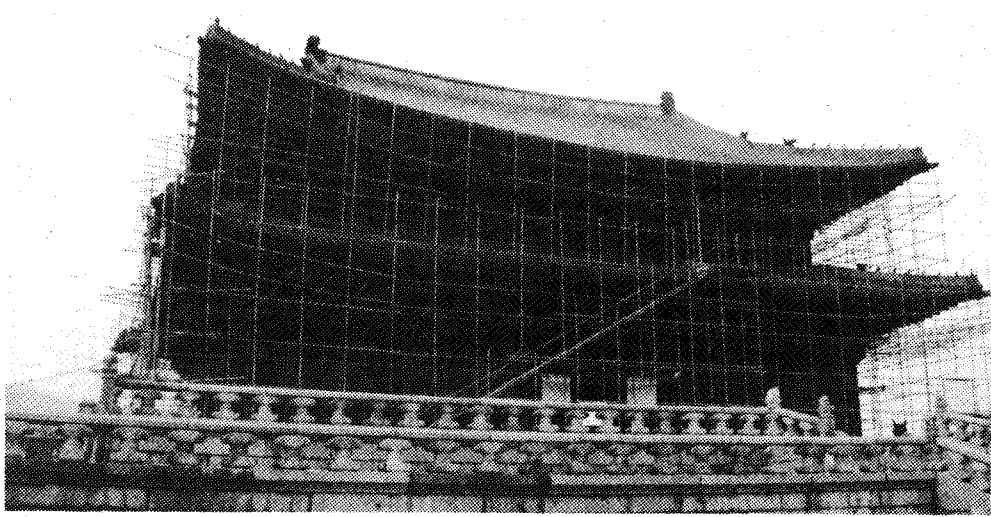
서울을 둘러본 외국인이 물었다.

“당신네 나라에는 왜 현것이 없을까?”

무엇이든 새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이 외국인의 발상이 얼른 이해되지 않는다. 새것이 있는데 왜 현것을 찾는가? 그러나 되짚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새것도 현것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없다. 새것은 반드시 현 것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 것은 또 하나의 새 것이 된다. 식혜는 현 것이지만 강통 식혜는 새것이다. 그러나 안락감에도 우리에게는 대 부분의 현것들은 우리민족과 역사적 부침을 함께 하며 질곡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한국문화재 수난사

일제시대는 그나마 어느정도 유지되어 오던 문화재가 가장 조직적으로 수난당했던 시대이다. 식민통치기간과 무단통치구속기에는 무법적인 약탈과 배움을 앞세운 총체적 수탈로, 1930년대 이후에는 겉으로 문화통치를 내세우면서 민족문화자재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일제는 사조일관 우리 문화재에 대한 파괴와 강탈을 자행했다. 특히 단순한 문화재 강탈이나 도굴 등이 아닌 문화유산의 변형과 파괴, 그릇된 역사관의 이식 등은 우리민족의 정신문화에 까지 지대한 피해를 끼쳐 아직까지도 우리문화유산이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숭례문이 왜 국보 1호가 되었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그 잔혹로만 알아왔고 그것도 여지껏 일제가 민족 자존심을 해치기 위해 정한 이름인 남대문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 일환으로 보수중인 경복궁 근정전

문화유산, 훌륭한 현재적 가치 지녀 전문가 양성, 정책 지원 필요

으로 불려왔다. 작년에 헐렸던 조선총독부 건물은 어떤가? 민족정기를 깎는다는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에 우리역사는 국립 중앙 박물관이라는 명패까지 달아 주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무수한 일본인들이 그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는 생각을 하면 얼굴이 절로 달아 오른다.

수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일제시대가 끝났고 동시에 일어난 6·25전쟁은 문화유산을 복구할 여력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니 그 이후는 말할 필요도 없다. 먹고 사는 데 바빠 문화재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문화재가 헐렸고 해외로 유출되기도 했다. 실제로 6·25후 미국

대사관 문정관으로 일했던 헨더슨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신라토기를 수집, 미국에서 신라토기 박물관을 만들 정도였다고 한다. 또 '초가집을 없애고 마을 길을 넓히자'는 새마을 운동등의 단기개발정책은 옛것에서 비롯한 새것보다는 옛것과 괴리된 새것을 추구하게 했고 건설을 위한 파괴가 만연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문화재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지만 기술 부족과 경험미숙등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80년대 들어서는 본격화된 서양문화의 대량 유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문화유산은 문화적 생활의 소산인

데 오늘의 우리문화에서 전통문화와의 유사성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가령 사람들이 우리음악을 듣고 우리춤을 추고 우리차를 마셔야 악기도 남고 춤사위도 남고 찻잔도 남는 것이고, 남아야만 이어질 수 있는 법인데 우리의 고유문화는 마치 거대한 미국의 한 귀뚜라기에 물려사는 인도언처럼 박물관 속에서 혹은 인사동거리로 내몰린지 오래다.

문화유산의 소중함

그래서 올해가 문화유산 보존의 해라는 소식은 반갑지만 하다. 비록 문화유산 알기-찾기-가꾸기로 짜여진 사업계획(알기 사업-연중 내내 문화유산알기운동, 문화재 발굴

50년사를 정리하는 학술세미나, 찾기사업-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남북 공동연구, 북한의 민족연구, 가꾸기 사업-문화유산 보호와 자연유산 보존과 관련한 학술세미나, 외국 문화재 관리 전문가 초청)문화재 보호재단 등에서 계속사업해온 것을 종합한 것이라 다소 참신하지 못한 감은 있으나, 문화유산에 대한 그간의 사업들이 대중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참고 한다면 내실 있는 실천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실천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정책적 투자 필요

그러나 여기에 배정된 금액은 단 10억. 문화유산의 보존은 다른 어떤 분야 보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함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 정도의 예산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정말 의심스럽다.

작년은 정부 고속전철 경주 통과와 가야산 골프장 건설 문제 등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여러 논쟁이 유난히 뜨거운 한 해였다. 이전에 없던 논쟁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은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런만큼 이제는 이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정책적 투자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다음 세기가 문화의 세기임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조상이 남겨준 훌륭한 자산을 소홀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강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답을 식혀나 수고과도 있음은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최수정 기자)

세시봉

김동욱 논설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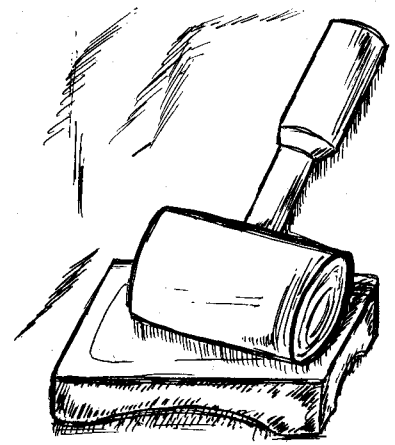
굳건히 지켜온 '날치기 전통'

시대를 거쳐오면서 도 굳건히 본래의 모습을 지켜오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우선 감탄한다. 무언가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감탄하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비난하기도 한다. 본래의 모습이 좋지 않을 경우에 부러워 문명정부까지 굳건히 자유당시절의 비민주적 정치풍토를 고수하고 있다면 감탄해야 하는가 비난해야 하는가?

다수의 민생법안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기피다.

지난 달 26일 새벽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개정안 등의 기습처리를 끝내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한국당 서청원 원내총무가 한 말이다. 또한 기습처리에 대해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지만 더이상 국회에서 정상적 적법절차에 따른 의사전행이 방해받아서 안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러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에선 안기부법 개정과 노동관계법 개정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펼쳐왔고, 안기부법 개정 등에 대해 여론이 높아졌을 때 우리학교에선 김형찬군이 안기부요원들에게 불법 체포되어 분신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과연 야당의 법안통과 실행여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당리당략만을 추구했던 행동이었는가? 또한 정상적 적법절차에 따르면 충분히



한 의견수렴은 무시되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각오하고 기습처리를 강행했다면 무언가 믿은 바가 있었을 법 하지만 노동운동단체의 파업결의로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안기부법개정에 따른 인권유린의 높은 가능성은 이미 예상된 부분이었었고, 이에 대한 차후의 파장은 기습처리자들의 바람보다 크지 않을까 싶다.

참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시금 문제의식을 느끼고 법안을 재고해 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인데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채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그들이 국민의 바람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라는 정치적 직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

새벽녘 나무방향을 두들기며 법안통과를 선포했던 오세훈 국회의장은 기습처리에 대해 '법안통과에 대한 소신은 있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단독처리는 없어야 한다.'라 말했다. '날치기'라고까지 표현되어지는 신한국당 법안 기습처리는 분명히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우리나라 정치에 흑막을 드리우기 시작한 자유당시절부터 3, 5공화국을 거치며 수많은 행태가 오고있는 이러한 날치기식 법안통과는 시대를 지나오면서 전혀 사그라지지 않고 굳건히(?) 그 명맥을 지켜오고 있다.

학술단신

대학언론 겨울강좌

민주언론운동협의회는 "언론에서 배워야 좋은 언론인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 대학언

론 겨울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오후 1~5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교육관(2호선 '홍대입구' 전철역 부근)에서 개최되며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

수강료 5만원. 문의는 ☎ 968-6377로 하면 된다. (아래표 참조)

◆교육내용

일시	강 의 주 제	강 사
1/20(월)	01:00 개강식-기자장신이란 무엇인가 01:30 편집기획론(주제정권, 아이템 선정 신준영(『월간 말』 기자) 및 기획장)	김태진(『본회의장』)
1/21(화)	03:00 취재론(사전취재, 현장취재, 인터뷰) 01:00 기사작성법(스토리라인/해설기사) 02:30 인터뷰 및 기사작성 실습 1	김경환(『월간 말』 기자) 김교만(『문화일보』 기자) 최민희(『본회의장』 사무국장)
1/22(수)	01:00(특강)나의 기자생활-한국저널리즘을 위하여 03:00 사전저널리즘-보도사진론	이정재(한겨레신문 부사장) 이정용(한겨레21 사진부 기자)
1/23(목)	01:00 편집위원 및 레이아웃-대학신문 편집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03:00 우리말·글 바로쓰기	임종일(한겨레신문 편집부 기자) 김호근(전 『우리교육』 기자, 교사)
1/24(금)	01:00 뉴미디어시대 신문제작메커니즘 2:30 인터뷰 및 기사작성 실습 2 4:00 수료식	이근영(한겨레신문 뉴미디어팀 기자) 최민희(『본회의장』 사무국장)

YWCA 겨울방학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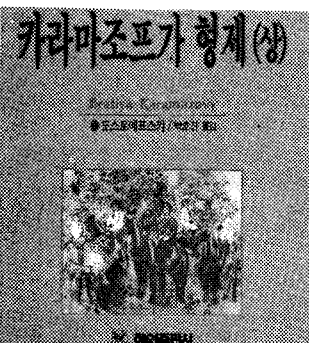
서울YWCA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스키캠프, 국제 자원봉사연합캠프, 일본 고베YWCA 교류프로그램등의 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스키캠프는 초등학교생 15만원, 중·고등학교생 16만5천원, 성인 18만원의 참가비 납부로 참가할 수 있으며, 대학입학예정자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2월1일까지 개최되는 국제자원봉사연합캠프는 참가비 5만원 납부만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또한 일본 고베YWCA교류프로그램은 2월17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며 참가비는 학생 55만원, 청년 60만원이다.

문의는 ☎ 서울YWCA대학부 232-7565로 하면된다.

나를 바꾼 이책



안영수
(문리대 영문과 교수)

이 소설의 무대는 19세기 제정 러시아이고, 여러 계급에 속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인간의 무한한 자유를 대변하는 지침서

하는 다양한 성격의 인물들- 귀족, 농노, 수도승, 평민, 지성인, 관리 등-이 등장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늙은 호색가인 표돌과 그의 네 아들 드미트리, 이반, 알료사, 그리고 사생아 스펜트자코프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이어 표돌이 살해당하는 복잡한 단란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작가는 인간이 서로 모순되는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복잡한 인간성을 음미, 강직과 교활이 공존하는 것

이 인간이다. 주정꾼이며 악당처럼 비치는 큰 아들 드미트리는 '나는 악당이지만 그래도 선을 좋아합니다. 선과 악이 인간 속에 괴물처럼 혼합이 되어 있다'라고 고백한다. 선과 악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이유는 '지상에는 인간이 괴로워해야 할 일이 하도 많고, 수고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이 소설 속에서 작가가 열어놓은 인간성의 지평은 무한하다. 둘째

아들 이반을 통해서도 사물의 질서를 거부하고 신에게 도전하는 형이상학적인 인물을 창조하여 신이 없는 사회와 무한한 인간의 자유를 꿈꾸는 초인간의 사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소설의 중심축은 막내인 알료사이다. 그는 '비록 그대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도' 그리스도의 최고의 규범을 보여주는 사랑과 사해포도주의와 자기희생의 교훈에 따라 살려고 애쓴다. 그를 통해 작가는 죄와 미덕을

결합하고 범죄에서 회개로 이끄는 희망의 빛을 보여준다. 이 소설이 나오기 10여년 전에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인간은 세상에서 되어나가는 일에 대해서 등을 돌리거나 무관심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안될 지고한 도덕적 이유가 있다'

지옥같은 삶조차도 수용하게 해준 도스토예프스키의 치열한 작가정신과 그가 열어준 무한한 인간성의 지평은 시대를 초월한다. 이 겨울에 많은 신세대들이 컴퓨터와 배배를 잠시 한쪽에 치워놓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정독할 것을 진심으로 권한다.

이공계 학술·교양·취업 전문지

테크사이더

기획특집

취업준비 1년 시뮬크

시기별 취업준비, 그 이론과 실제

과학인가, 미신인가 - 토정비결

점술 과학? 헛된 미신? 대중은 혼란스럽다

취업정보·산업공학과

산업 전문분야 진출, 취업률 100%육박

대학·경북대 농학과 김순권 교수

옥수수만 만들어 가는 사랑과 풍요의 세상

인터넷 대학여행 인터넷으로 떠나는 세계의 대학탐방 ⑥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기업의 현장·소자본 창업사례 ⑥

유아·아동복 분야 등 유망 제품과 함께 창업 형태도 고려해야

창립20주년 고객만족의 해

고객지원실 TEL 080-711-1004 FAX 278-5222

Since 1976



구독 : 277-1100
FAX : 263-2533

엘리트뱅크